

예배시간: 오후 12 시

경배와 찬양(Praise)		다함께
성경 교독(Responsive Reading)	시 116:1-5	다함께
봉헌(Offertory)	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	다함께
말씀(Message)	왕하 5:10-15 작은 변화가 은혜에 이르기까지	안광문 목사
헌신과 결단(Dedication)	여기에 모인 우리	다함께
축도(Benediction)		안광문 목사
교회소식(Announcements)	새로운 만남과 나눔 & 축복	인도자
성도의 교제(Fellowship)	축복합니다	다같이

■ 예배 위원 ■

섬김 순서	교독문	안내	헌금
이번주 (3/23)	시 116:1-5	김흥기	김미희
다음주 (3/30)	시 118:1-10	김흥기	김미희

■ 섬기는 분들 ■

담임목사	안광문	인도/반주	양하늘, 임승환
협동목사	임승환	교 사	안시온
교역자	양하늘	후원선교단체	New Creation Mission

[목장에서 나눌 질문]

1. 나아만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?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나눠보세요.
2.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? 우리가 일으켜주고, 또 우리를 세워주는 동역자 또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눠보세요.
3. 나아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는지 나눠보세요.

Solar Light 에서 배우는 진리

최근 한 가지 Dilemma 가 생겼습니다. 현관 앞이 너무 어두운데 그렇다고 밤새 불을 켜 놓자니 폭탄처럼 청구될 전기세가 걱정이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에 아내가 Solar Light 를 사 왔습니다. 마침 Sale 을 해서 사 왔다고 했습니다. Design 도 괜찮았고 조립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물론 가격도 만족할 만 했습니다.

현관 앞 계단 옆으로 나란히 4 개를 꽂아 놓았는데 밤이 되니 그럭저럭 근사했습니다. 원리는 낮 동안 햇볕을 받아서 그 Energy 를 저장해 두었다가 이를 다시 전기 Energy 로 바꿔 밤에 빛을 내는 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전기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전지조차 필요하지 않아서 정말 좋았습니다.

그러니까 Solar Light 가 내는 빛은 그 자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 동안 태양에서 받았던 빛을 모아 두었다가 밤에 그 빛을 다시 내놓는 것입니다. Solar Light 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역시 Solar Light 처럼 스스로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.

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모아 두었다가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다가 그리고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내놓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낼 수 없지만 Solar Light 처럼 받은 바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했다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.

- 안광문 목사 -

◆환영 새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새가족부실에서 교제의 시간이 있습니다.

◆금년 사역 주안점

•예배의 회복 •목장모임의 회복 •지역 섬김

- 예배의 회복, 목장모임의 회복, 지역 섬김을 통해 성벽을 재건하는 한 해가 되기를

◆교회 소식

- 오늘 (3/23)은 양하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 주십니다.
- 데살로니가전서 1-3장 말씀 중에서 7번에 걸쳐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.

◆생명샘 가족 동정

- 정일남 / 옥분 집사님 한국 방문 중입니다. (3/16부터 2개월)
- 엄경희 집사님 업무 일정 조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
- 백경희 권사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.